

종합·해설



4·11 총선 표밭은 지금

■ 광주 북구갑

민주통합 6명 '본선보다 뜨거운 예선'

광주 북구 갑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지역 내에서 상당한 지력이 있는 5명의 경선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져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with 7 columns: Candidate Name, Party, Age, and Party Role. Candidates include 강기정, 김경진, 박규환, 이관행, 이형석, 이채언, 임현모.

여기에 통합진보당 이채언 전남대 교수가 출마해 본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일대일 대결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은 일부 후보들 간 '리턴매치' 성격이 짙다. 임현모 광주 교대 총장은 지난 18대 총선 대통령 민주신당 경선에서 강 의원에 대해 고배를 마셨고, 김경진 변호사는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 의원과 맞붙어 석패했다.

이 때문에 이들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 강기정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3선에 도전하는 강 의원은 17대와 18대 총선에서 김상현 전 의원과 한화갑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으면서 지지기반을 다져온 탓에 탄탄한 조직력이 감점이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노인복지 등 복지 관련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층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강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층과 반대세력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 후보 '反강기정 연대' 변수 18대 낙방 임현모·김경진 절치부심 이형석·이채언 등도 '표밭갈이' 분주

석된다.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인 김경진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4.06%의 저조한 득표율로 강 의원에 패했지만, 4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절치부심'하며 밀바다 표심을 다져온 탓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과 광주시의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이형석 후보도 지역 내 상당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 광역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장으로

높다는 것이 감점으로 알려졌다. 전 참여정부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박규환 후보는 노무현 재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과 광주 혁신과 통합 창립 준비위원회 등을 맡아 일해 온 만큼 '혁신과 통합으로 정권교체'라는 가치를 내걸고 표밭을 갈고 있다.

민주당 17대 대통령 후보 특보 2단장을 맡았던 이관행 후보도 경선에 뛰어들어 지지층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중 김경진·이형석·임현모·박규환 후보 등 4명은 수차례 만나 '반 강기정 연대'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4명이 현역 강 의원과 어떤 대결 구도를 펼쳐 갈지가 광주 북구 갑 선거구의 최대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해 공천 경선 이후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20여 년간 전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해 온 이 후보는 그동안 '와신상담'하며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교대 총장 출신 탓인지 다른 후보들에 비해 20~30대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감점으로 알려졌다. 전 참여정부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박규환 후보는 노무현 재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과 광주 혁신과 통합 창립 준비위원회 등을 맡아 일해 온 만큼 '혁신과 통합으로 정권교체'라는 가치를 내걸고 표밭을 갈고 있다.

강진·무안군수 보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시장과 강진군수, 무안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30일 현재 강진군수 예비후보로 민주통합당 강진연(52) 전 장흥부군수, 서채원(50)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상남(56) 전 광주지방조달

청장(예비후보 등록 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무안군수 예비후보로는 민주통합당 김철수(54) 전 전남도의원, 나상욱(58)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 박만호(60) 전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무소속 진상열(59) 전 무안군청 지역개발과장 등 4명이 등록

전 순천시의회 의장, 안세찬(50) 전 순천시의원, 윤병철(50) 전 순천시의원, 이은(59) 전 해양수산부차관, 조충훈(58) 전 순천시장, 송을로(49) 녹색자치포럼 공동대표, 허석(47) 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허선(59) 전 공경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순천시장과 강진군수, 무안군수 보선도 총선 못지않게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fo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Hanja/Hanwen Instructor Qualification) with details on exam dates, fees, and application procedures.

Advertisement fo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National/Recognized Hanja Instructor Qualification) with details on exam dates, fees, and application procedures.

Advertisement fo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Nongseongdong Leaders High Housing Showroom) with details on floor area, price, and location.